

지역 소식통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올해 첫 모내기 진행

부안군은 영농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줄포면 우포리 일원에서 해당마을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생종 벼인 해당은 밭맞이 우수하고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병충해에 강하고 내도복성이 특징으로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8월 말에는 햅쌀 수확이 예상된다.

군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벼농사 필수 영농자재인 육묘상토, 육묘상처리제 및 유기질비료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내기는 5월 한달 간 본격 모내기가 진행되고 6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중앙농산, 복분자
농공단지 투자협약 맺어

고창군이 지난달 28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중앙농산(대표 정진권)과 복분자농공단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중앙농산은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09-1번지 복분자농공단지 내 부지 3507㎡에 고춧가루 제조·가공시설을 이전한다. 2029년까지 총 19억원을 투자하고 51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중앙농산은 기존 고추 도·소매 기반을 바탕으로 제조·가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원재료 입고부터 세척·건조·분쇄·선별·포장·출하에 이르는 체계적인 생산공정을 갖춘다. 특히 관내 고추 생산농가와의 지거래 매입을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부가가치 향상이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금융 시데이터 센터 구축

파운트와 2만평 규모 '정읍형 금융AI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도시 전환 기대

정읍시는 6일 정읍시청에서 금융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주)파운트와 2만평 규모의 자료 전산실(데이터센터) 건립을 골자로 한 '정읍형 금융AI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산 관리와 위험(리스크) 관리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하는 대규모 전산망을 세우고 지역 상생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첫걸음이다.

2015년 문을 연 (주)파운트는 인공지능 자산 관리(로보어드바이저)와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 탄탄한 경쟁력을 입증해 온 기업이다. 현재 금융기관 전용 자산 관리 체계 구축, 퇴직연금 일임 서비스, 금융 특화 인공지능 기반 체계인 'KAIDRA'를 주력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안정적인 전력과 통신 기반 시설을 고루 갖춘 데다 균형발전 정책 혜택, 농생명·바이오 연구 기반, 적극적인 행정 지원 의지를 지니고 있어



이번 사업의 최적지로 꼽는다. 시는 앞으로 인허가 사전 검토와 지역 연계 과제 발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산업적 성과 창출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 방안도 함께 찾는다. 자료 전산실(데이터센터)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남은 열에너지를 지역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에 공급해 순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

울러 파운트의 기술을 활용해 비의료적 생활 안전 관찰 중심의 '고령 친화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성을 높일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러한 첨단 기술과 자료 기반 시설 확충은 교부까지 일자리 창출, 청년 인재 유입, 지역 기업 참여, 농생명 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이어져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크게 넓힐 전망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3회 부안마실축제, 안전관리 빛났다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질서정연한 축제 운영 '호평'

부안군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제13회 부안마실축제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의 성공적인 안전관리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민관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군은 축제 개최 전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인파 밀집 대응 요령과 비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의용소방대와 시민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안전관리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곳곳에 배치돼 행정 인력과 긴밀히 협력하



며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그 결과 많은 인파가 몰린 주요 프로그램 시간대에도 혼잡 없이 질서정연한 축제 운영이 이뤄졌으며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한우 농가에 '미네랄블록' 지원

2억1000만원 투입해 총 7000개 공급... 고품질 한우 생산 기대

정읍시는 고품질 한우 생산과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2억1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사육 농가에 무기질 보충제(미네랄블록) 7000개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한우의 성장과 면역력 강화, 번식 효율 개선에 필수적인 무기질을 제공해 사양(가축 사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보급은 정읍시와 순정축협 정읍경제사업장이 함께하는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다. 시는 축산업 허가와 등록을 마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지원 대상 선정을 완료했다. 확정된 농가에는 일정 수량의 미네랄블록을 차례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미네랄블록은 소 개체별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질병 예방은 물론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 대비까지 도울 수 있어 축산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에 100만평 글로벌 리조트 시대 연다”

심덕섭 고창군수 예비후보, 2000만 관광객 유치 5대 실행계획 발표

장기포역사공원·전봉준기념공원 완성... K민주주의 성지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심덕섭 고창군수 예비후보가 “고창을 2천만 체류형 관광 경제도시로 대도약 시키겠다”는 핵심 공약을 6일 전격 발표했다.

심덕섭 예비후보는 “석정온천 4등급 웰파크 호텔 개관과 3,500억 원 규모 모나오픈 리조트 유치를 굳건한 토대 위에 먹고 자고 돈을 쓰는 거대한 경제 지도를 군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예비후보가 공개한 실행계획의 뼈대는 고창 전역을 잇는 5대 관광 클러스터다. 구체적으로 △방장산·암치석산 웰니스·산악치유 통합 클러

스터 △고인돌·운곡·선운산권역 생태·역사 통합 클러스터 △고창읍성·역사·문화·쉽 클러스터 △고창종합테마파크 생태복합 리조트 클러스터 △명사십리 해양치유 레저 클러스터가 포함됐다.

특히 심 예비후보는 “기존 45만평 규모의 석정온천 지구 성공에 이어, 고창갯벌 세계유산센터, 스마트 염전, 노을·갯벌생태플랫폼 리조트&컨벤션센터, 국제카누경기장 등을 묶는 100만평 규모의 ‘글로벌 생태관광 리조트’를 고창의 자존심으로 완성해 내겠다”며 압도적인 스케일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수학여행 적극 지원정책’에 발맞춰 전국최고의 수학여행 필수코스 등록을 추진한다.

“무장기포 역사공원과 전봉준 기념공원”을 완성하고, 고인돌·운곡권역 생태·역사 테마를 연결한 K-민주주의와 생태, 역사를 통합하는 여행테마로 전국적인 수학여행단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흡수한다.

이번 공약은 ‘군민의 주머니를 채우는 상생의 대도약’에 방점을 찍었다. 심 예비후보는 “모든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고창 내에서 우선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관광객의 고창사랑상품권 환급을 확대하여 대형 투자의 낙수효과가 읍면 골목 상인들에게 돌아가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13회 부안마실축제 성황리 폐막... 25만1000여명 방문

부안군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부안 해돋이마루 지방정원에서 개최된 제13회 부안마실축제가 총 방문객 25만 1,000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일상이 특별해지는 5월의 선물’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구 축제로 도약하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했다.

5월 2일 개막식에는 글로벌 아이돌 피피티피피티와 임창정, 예능, 소명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축제의 포문을 열었으며, 이어지는 일정 동안 체리필터의 록 공연, 꿈의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길라쇼 등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어린이날이자 폐막일인 5일에

는 뽀로로 심어롱쇼와 함께 진성, 김태연, 안성훈 등 트로트 스타들이 대미를 장식했으며, 대규모 불꽃놀이인 방문객들에게 낭만을 선사했다.

이번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실천한 ‘지속가능한 축제’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연기 없는 친환경 소독 본격 가동

정읍시는 기후 변화로 앞당겨진 해충 발생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친환경 연무 소독을 중심으로 한 하절기 집중 방역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시는 일본뇌염 등 주요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정화조 등을 대상으로 유충구제를 진행해 왔다.

기온이 본격적으로 오르는 5월부터는 모기 활동 시기가 빨라진 점을 고려해 야간 차량 방역을 지난해처럼 한 달 앞당겨 실시한다.

시내 하수구와 복개천 등 18개 방역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촘촘한 방역망

을 짜 공백을 없앨 계획이다.

이번 방역의 핵심은 과거 하얀 연기를 내뿜던 연막 소독을 대체한 ‘친환경 연무 소독’이다.

과거 살충제에 경유를 섞어 태우던 방식은 질은 연기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작용이 컸다.

반면 친환경 연무 소독은 경유 대신 물과 확산제를 섞어 분사한다.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 자칫 방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미세한 입자가 해충 서식지 깊숙이 파고들어 기존 방식과 같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방제 효과를 낸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